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스트레스 진료환자, 갱년기 이후 여성이 최고
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, 스트레스 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5년 6만 6천명에서 2008년 10만 1천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15.3%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.
  - 2008년 성별 실진료환자수는 남성이 3만 8천명인 반면, 여성이 6만 3천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.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.
-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2만 1천명과 1만 6천명을 기록해 전체 실진료환자수의 39.0%를 차지하고 있었으며, 연령대별 10만명당 실진료환자수는 50대 여성이 355명으로 최고를 나타냄.
  - 그 뒤를 이어 40대 여성이 399명, 60대 전반 여성이 306명, 60대 후반 여성이 292명, 30대 여성 284명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의 갱년기 이후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 - 특히, 스트레스 실진료환자수가 해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10대였으며, 최근 3년 동안(2005~2008년) 1.8배 이상(연평균 22.7%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근로여부와 관련해서는 직장여성 근로자가 262명, 여성 비근로자 226명, 남성 근로자 157명, 남성 비근로자 110명의 순으로 나타나 직장 근로자가 비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 실진료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 - 근로여부에 따른 실진료환자수는 여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, 30~40대 남성 근로자 경우에는 비근로자에 비해 각각 2.0배, 2.3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.
-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5년 83억원에서 2008년 159억원으로 1.9배 증가하였으며, 2008년 스트레스질환 급여비는 1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남.

(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50대 여성이 최고,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, 7/31)